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2. 3. 30 발행인 : 최홍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심는 순서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3
● 한국평협 회원 단체	
마리아사업회	14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5
한국가톨릭의사협회	16
레지오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16
● 평협회장 단상	
50년, 60년의 세월 - 회경축, 금경축 축사를 드린 의미	18



알림

- 제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오는 6월 29~30일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한국평협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최홍준 회장 재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2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12년도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홍준 현 회장을 제19대 회장에 다시 선출했다. 14개 교구 평협회장장과 25개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평협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한국의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과 아시아 평신도대회 결실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제19대 회장으로 재선된 최홍준 회장은 당선에 감사하며 “한국평협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한국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롭게 출발하자.”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 전 세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

라에서 치르게 될 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정치를 펼쳐나갈 일꾼을 선택하는 실천을 해나가자.”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1)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 기념미사를 집전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강론을 통해 “작년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다.”고 치하한 후 “순교 선조들 덕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도 신앙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으면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염주교는 또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역할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평신도교령에 명시된 평신도의 사명을 활발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한국평협 40주년 백서」 출판기념회 열어

한국평협은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지난해 말 출판된 「한국평협 40주년 백서」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백서의 출판을 알림과 동시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와 평협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 제7대 한국평협 담당인 송광섭 신부와 각 교구평협 회장단, 과거 평협 회장단과 전임, 현직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 인사말씀에 이어 축사와 격려사, 백서 발간 경과보고, 폴리포니앙 상블의 축하, 만찬의 순으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 최홍준 회장은 “아무쪼록 「평협 40주년 백서」 출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가르침에 우리 평협이 얼마나 충실히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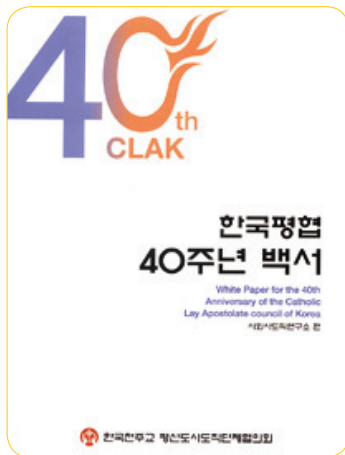


한다.”며 “평협 50년사를 더 잘 준비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축사에서 염수정 주교는 “한국교회의 평신도와 평협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도직 실천을 통해 이 땅의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 나서서 아시아를 넘어 온 세상에 우리의 신앙전통의 계승을 전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평협 40주년 백서」는 현재 한국평협 사무국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며,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 자료실을 통해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교회 언론에 비친 ‘백서’ 내용이다.



‘백서’는 어떤 책인가?



‘백서’는 1968년 7월 23일 창립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한국평협)가 지나온 40년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평협 산하에 설치된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를 통해 편찬, 출간한 책이다. 백서의 내용은 먼저 한국평협의 창립배경과 이후 걸어온 40년간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평협의 활동이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가를 기술했고 특히 10년기마다 1)교회내적관계, 2)선교, 3)가정·생명·환경, 4)정치, 5)경제·사회, 6)사회복지, 7)교육, 8)문화·언론·출판, 9)국제관계, 10)민족화해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였고, 40년 간의 활동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토대로 제50년기에 한국평협이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는 한국평협의 연표와 함께 그 동안 한국평협에서 발표한 각종 선언문과 성명서,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역대 임원 명단과 함께 지난 2007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평신도 신앙실태조사 분석’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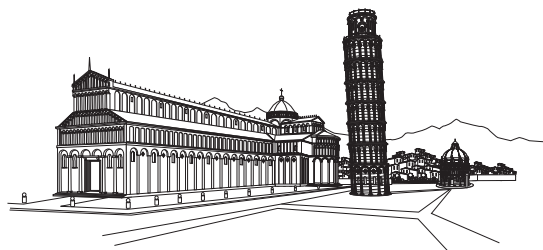
백서는 한국평협의 활동을 성찰하면서 그 결실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서 평신도 인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회내적 관계, 즉 평신도와 성직자, 수도자와의 관계 안에서 평신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데에 소극적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활동에서도 단체와의 연대활동이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자인하면서 현세 질서 안에서 복음 선포와 성화라는 평신도사도직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한국사회에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빈곤, 무분별한 재개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침묵했음을 반성하고 있다.

제언부분에서는 평신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사회교리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평신도 신앙생활임을 지적하면서 한국평협의 활동 또한 중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먼저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에서 의미하는 ‘정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천해야 하며 평신도사도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동선에 입각한 정의감으로 이 땅에 평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체제와 정치 참여, 경제적 정의의 실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도덕적 법칙에 합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생명·환경 분야에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신도를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함께 성직자, 수도자의 활동과 차별되는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문화의 복음화와 통일을 대비한 민족화해 활동,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협상(平協像)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조직 내 인프라 구축과 사무·연구 기능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바티칸 순례단 시성성 방문



한국평협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회장단과 각 교구 회장단을 주축으로 바티칸 순례단을 구성하고 23일 시성성으로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예방했다. 당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와 평협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 로마 한인신학원장 김종수 신부와 바티칸주재 한국대사 한홍순 전 평협회장도 이날 함께했다. 한국평협 회장단은 또 같은 날 로마 시내에 있는 교황청 평신도평의회를 방문해 스타니슬라오 리우코 추기경을 예방하고 오늘의 한국평협 활동 보고에 이어 서울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관한 소감을 듣기도 했다.

다음은 최흥준 한국평협 회장이 시성성장관 아마토 추기경에게 한국 평신도들이 벌이고 있는 하느님의 종 한국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시성 기원 기도운동을 보고한 내용이다.

한국평협(CLAK)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 보고

존경하는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님과 시성성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뵙게 돼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2009년 6월 3일 한국 주교단이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한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청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제단에 오를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선포된 103위 순교 성인들의 시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선배 신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봉헌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자신부터 복음화되어 순교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한국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한 신앙 쇄신운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국평협과 각 교구 평협이 전개해온 기도운동의





내용을 각종 자료로 정리해서 이곳 시성성에 제출하기 위해 오늘 장관 추기경님을 예방했습니다.

한국평협은 지난 5월 27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하느님의 종’ 한국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한국교회의 열망이 바티칸 시성성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운동을 펼치자고 결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기도로 뜻을 모아 하루빨리 시복 시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도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날마다 실천하며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에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 한국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묵주기도 125억 단 봉헌운동: 현재 시복 시성 청원중인 하느님의 종들을 위해 한 위당 1억단씩 총 125억 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하루 묵주기도 다섯 단씩 바치기로 했습니다.

◆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며 가능한 대로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 교구별 순교자 현양 행사가 9월에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각 교구별로 진행한 순교자 현양 행사에 평협이 적극 참여하고, 교구 내 신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 평협 순교자현양 전국 성지순례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한국평협과 각 교구평협, 사도직 단체 등에서 참가한 순례단이 5일 동안 전국 27군데 순교성지를 돌면서 시복 시성을 청원하는 기도순례를 실시한 것입니다.

◆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 상본을 대량 제작해서 전국으로 배포했습니다.

◆ 올 한 해 동안 벌인 기도운동을 종합하여 바티칸 시성성에 제출하는 순례단을 조직해서 오늘 이렇게 추기경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도운동을 벌이면서 비록 피를 흘리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특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숨결을 마시며 십자가를 안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이 기도운동에 한국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1. 우리는 ‘하느님의 종’ 125위의 삶과 영성을 날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하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삶으로써, 그분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우리는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의 염원을 의탁하는 뜻으로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씩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년 제43회 정기총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지난 1월 28일(토)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준 현 회장을 제19대 회장에 다시 선출했다.



평협 회원 단체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교구 사목국장)의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작년에 이어 실행하고, 한국 교계제도 설정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홍준 회장은 "신앙의 해를 지내며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 말씀을 살아야겠다."며 우리의 신앙이 '연료가 없는 불꽃'으로 위기에 있다는 교황님 말씀을 인용하며 "신앙의 해를 시작하는 올해 평협도 새롭게 출발하여 '연료를 가득 태울 수 있는 불꽃'이 되자"고 인사말을 했다.

업무와 회계 감사보고에 이어 1호 안건으로 2011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통과됐고, 2호 안건으로 임원개선 안건이 다뤄졌다. 임원개선에서는 제19개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권길중 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명단을 교구장에 상신해, 최홍준 회장 1인이 지명 받아 19대

회장으로 선출됐고, 부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새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회는 또 3호 안건인 201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단체 소식

<가톨릭 경제인회>

제18대 회장에 유영희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주)유도 회장 선출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유영희, 담당사제 조학문)는 지난 2월 21일(화) 오후 5시 30분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와 2월 월례미사를 통해 제18대 회장으로 유영희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주)유도 회장

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유영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회장의 직무를 혼을 녹이는 열정을 가지고 진솔하게 수행해갈 것을 약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신앙적 유대감과 형제애를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날 임시총회 후 조학문 담당사제의 집전으로 올해 첫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미사 후 저녁식사와 더불어 회원들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2차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흥거, 담당사제 임기선)는 지난해 11월 3일(토) 전의에 위치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교구내 71개 본당, 23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대전 평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2012년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본당 회장단들이 본당 신부를 도와 사목교서 실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성 신부(노인사목전담, 유성성당 주임)의 노인사목에 대한 특강에 이어 그룹토의에서는 참석자들이 10개 조로 나뉘어 평협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토의하고 중요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42차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보고와 결산 그리고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김흥거 회장은 인사를 통해 참석한 회장단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행사 참여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임기선 신부는 "현재 대전교구의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친교의 교회건설'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 해 한 해 세부적인 교서가 발표되는 만큼 2012년은 우리교구가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므로 회장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회장단이 선교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구장 회의

대전평협은 1월 28일(토) 오전10시~13시까지 교구청회의실에서 지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 김종수 총대리주교와 함께 지구회장 11명과 상임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 평협소식지 발행과 2012년 한생명운동, 까리타스행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평협소식지 발행은 2개월에 한번 주보 간지를 발행해 전신자가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하고, 한생명운동은 상반기에는 천안-서부에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당진지구와 서산 지구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까리타스행사는 9월에 전신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논의했다.

지구장회의에 함께한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제2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아 공의회 정신은 친교이며 소통이다. 순교자와 성지가 많은 은혜로운 대전교구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김종수 총대리주교는 "복음 속 '풍랑속의 배'처럼 여러분 가정이나 본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 봉사가 주님 안에 열매 맺길 바란다."하며 격려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연합회 임원피정



2012년 인천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유용숙, 담당사제 안규태)는 상반기 임원피정을 2월 28일(화) ~ 29일(수) 1박 2일로 강화 서원면에 위치한 맑은하늘펜션에서 담당사제 안규태 신부와 함께 실시했다. 각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피정을 진행했으며, 파견미사 강론에서 안 신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 하느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심을 알고 감사히 받아드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창한 날씨를 벗 삼아 산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피정의 시간이 됐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년 상반기 ‘교구장과의 만남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변영철, 영성지도신부 문희중)는 2월 4~5일 죽산 수원교구 영성관에서 ‘2012년 상반기 교구장과의 만남 및 총회장 연수’를 개최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연수에서는 말씀의 전례 ▲평협회장 인사 ▲제1강의 우리 교회의 봉사자(강성숙 수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2강의 본당운영에 대하여(김중현 회계사, 수원교구 재무평의회 위원) ▲대리구별 토의 ▲영상으로 듣는 대리구장의 신년인사 및 저녁기도 ▲친교의 시간으로 이뤄졌으며, 둘째 날은 제3강의(문희중신부,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제4강의(최석렬신부 안성추모공원 원장)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의 만남 ▲파견미사 ▲사진촬영 및 선물 증정으로 진행됐다.

교구 내 각 본당 총회장과 평협 임원 등 17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연수를 통해 총회장으로서 역할과 교구 중점 사업 정책과 방향, 2013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앞 둔 교구 준비상황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어 각 대리구와 본당별 교구장 중점사목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변영철 수원교구 평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에 우리 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교구민 전체의 큰 축제를 위해서 총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교구가 같이하는 희망의 땅 복음을 이루기 위해 힘찬 발걸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했던 이 주교는 파견미사에서 본당주임신부의 사목을 도와 신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총회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예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실행하자.”고 전했다.

상반기 연수는 교구청에서 1일, 하반기는 아론의 집에서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것을 총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를 죽산 교구영성관에서 1박으로 하고 대신 하반기를 교구청에서 1일로 하기로 결정되어 처음 진행됐고, 각 대리구내 행사사진을 편집한 동영상과 음성으로 대리구장 신부님들의 신년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수원교구는 성남 대리구 29개, 수원 대리구 31개, 안산 대리구 29개, 안양 대리구 27개, 용인 대리구 38개, 평택 대리구 44개 총 154 본당으로 이뤄졌다.

단체 소식

<천지의 모후 레지아>

2012년 레지아 꼬미시움 간부, 꾸리아 단장 교육

수원교구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영성지도신부 문희종)는 2012년을 맞아 2월 18일과 25일 2차에 걸쳐 안양 대리구청 대강당에서 대리구별(1차-수원·안양·평택 / 2차-안산·성남·용인) 꼬미시움 간부와 꾸리아단장 교육을 실시했다.

총 341명이 참석해 90%가 넘는 참가율을 보인 이번 교육에서 김상국 단장은 '레지오 단원은 선택된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평신도 수도자 단체에 속한 단원임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레지오 성소를 상실하는 단원이 된다."고 역설하며, "하느님께 선택된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가 더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꾸르실료>

꾸르실료 제 37차 정기총회 및 본당임원 연수

지난 2월 19일 죽산성지 내 교구 영성관에서 '수원교구 꾸르실료 제 37차 정기총회 및 본당임원 연수'가 울트레야 4간부 및 꾸르실료 사무국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를 부제로 실시됐다.

꾸르실료 영성담당 이철수 신부와 교구 영성관 관장 송병선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37차 정기총회 및 본당 임원 연수'는 ▲시작기도 및 환영사(이철수 신부) ▲격려사(송병선 신부) ▲성직자 료료(이철수 신부) ▲본당 임원 직무 교육 등의 오전 프로그램과 ▲총회(의사일정 확정-안전심의-감사보고-예결산 승인) ▲모범 본당 및 우수 대리구 포상 ▲2012년 각 차수회장 임명과 상설 봉사자학교 수료증 수여식 ▲신임 사무국 임원 임명 등의 오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2차 정기총회와 복음화 시상식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뇰) 제42차 정기총회와 복음화 시상식이 2월 3일부터 4일까지 가톨릭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마산교구 평협이 주최한 이번 총회는 각 본당 회장단 및 교구 단체간부와 교구 평협위원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2012년 평신도사도직 지침서 ‘나는 평신도다!’ 발표를 시작으로 복음화대상 시상식과 사례 발표, 교구장 주례의 미사와 특강, 이제민 신부(명례성지성역화 추진담당)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 50주년과 평신도’ 강연과 지구별 토론, 정기총회 및 파견식과 평신도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미사 중 특강에서 “함께 길을 걷어가는 것은 빵을 나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 외에 또 다른 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며 하느님을 보여주는 계시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김황성(바오로, 대방동본당)이, 수석부회장으로 김덕곤(요한, 반송본당)이 선출됐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과 신년하례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우원주)는 1월 1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각 본당 사목회장단과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옥현진 총대리 주교와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김희중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새해 첫날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이기를 축복해 주시고, 교구설정 75주년을 맞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아가길 부탁했다.



제41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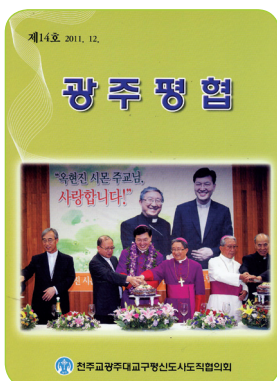
광주평협은 1월 2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교구장 사목교서 “가정의 해”에 대한 우원주 사목국장 신부





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교구평협 임원 및 지구별 본당 사목 회장과 제 단체장 소개가 있었고, 2011년도 활동현황, 결산 보고와 2012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특히 제 32대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서는 서정권(베드로) 회장과 조재현(다니엘) 부회장이 연임됐고, 감사에는 김영식(세례자 요한, 운암동성당), 임송(아론, 꾸르실로 주간)이 선출되어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게 됐다.

「광주평협」 제14호 발행



광주 평협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광주평협」 제14호를 발행했다. 광주대교구의 자랑인 옥현진 시몬 주교 탄생의 이모저모와 지구평협, 교구단위 제 단체들의 특별한 활동들을 화보로 정리하고, 신자들의 성지순례기, 신앙체험들을 함께 엮어 발행하여

각 본당과 제 단체, 전국 교구평협에 배포했다.

여성위원회 제8차 정기총회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고문희, 담당사제 우원주)는 1월 14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담당사제인 우원주 신부의 “가정의 해”에 대한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실행지침 특강에 이어 2011년도 활동현황, 결산보고와 2012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특히 제5대 임원 선

출에서 고문희(포카스) 위원장이 연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는 박남효(루치아, 문흥동성당) 자매가 선출되었다.

제32대 임원 임명장수여식



광주 평협은 2월 14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32대 평협 임원과 제5대 여성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전임 임원에 대한 공로 표창도 함께 했다. 이날 김희중 대주교는 “어렵게 소임을 맡아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는 대교구설정 50주년과 교구설정 75주년, 더 나아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평신도 임원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막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평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영적성장을 이루어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지구별 임원연수회 개최

광주 평협은 지구별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해



▲ 광산지구 연수



2012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가정에서 시작하는 복음화”에 대한 실행지침에 대해 사목국장 우원주 신부의 특강과 각 지구장 신부의 강의, 각 분과별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 ▶ 서부지구 : 2월 5일, 염주동성당, 180여 명 참석
- ▶ 광산지구 : 2월 12일, 비아동성당, 160여 명 참석
- ▶ 목포지구 : 2월 19일, 하당성당, 170여 명 참석
- ▶ 동부지구 : 2월 26일, 방림동성당, 170여 명 참석



▲ 동부지구 연수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는 2월 5일 가톨릭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평협은 이번 총회에서 2011년도 결산서 및 2012년도 사업을 승인했다. 2012년도 사업으로 2월 27일부터 6월 4일

까지 12주간의 제2기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해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교구 성모의 밤 행사, 평신도의 날 본당 총회장과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만남, 사회교리주간 행사, 평협 회보 발간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제2기 사회교리학교 개교

제주평협은 천주교 신자들이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 혼탁한 우리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를 주제로 제주교구 제2기 사회교리학교를 2월 27일(월) 오후 7시 연동성당에서 19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사회교리학교는 개교식에 이어 강우일 주교의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강의를 시작으로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 6월 4일에 수료식을 갖는다.





마리아사업회

12월 성탄축제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남녀 4젠(만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까지)들은 2011년 11월 모임부터 “예수님을 쫓아내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 아기에수님 상을 만들기 위해 틀에 석고를 부어서 말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기에수님 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을 통해 성탄을 잘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12월 17일 서울 명동의 큰 건물 앞에서 캠페인을 위해 장소 사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지만 매번 종교와 관련된 행사라는 이유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4젠들이 실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를 위해 오시는 아기에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기적처럼 수녀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명동의 작은 성물방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기에수님 상과 성탄에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 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은 주머니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어린 4젠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함께 노래를 부르며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학생들에게 “성탄에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가세요!”하고 외치며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천주교 신자들이구나!” 하시며 기쁘게 아기에수님 상을 받아 갔다. 성탄 다음날 평화신문에는 “예수님을 쫓아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4젠들의 활동이 기사에 실리기도 했다.

그 다음날인 12월 18일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포콜라레 회원들 양성 센터) 3, 4젠(만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들이 친구들을 위한 성탄 축제를 준비하였다. 총 235명이 참석했고 처음 온 어린이들에게 젠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였고 평소에 사랑을 실천 하기위한 사랑의 주사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 4젠들의 구체적인 경험담도 얘기해 주었다. 보조자들이 직접 준비한 “구두 수선공 마르티노”연극을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으며, 워크샵 시간에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사랑의 주사위’를

구체적으로 살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남녀 3, 4젠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미사를 드렸고 미사 후에는 각자가 예수님께 적은 편지를 풍선을 띄워 날려 보내기도 하였다. 한 4젠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친구들이 다음번에도 꼭 초대해 달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주, 대전, 춘천 지역의 3, 4젠들도 그곳의 포콜라레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탄 축제를 열었다.



포콜라레운동 회원 합동 연례피정

포콜라레운동 한국 본부는 2월 3일~ 5일 강원도 평창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회원 합동 연례피정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15)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례피정은 세계 포콜라레운동의 올해 주제인 <말씀>을 회원들의 삶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각 지역의 회원 상호 간의 일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원 피정에는 대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주교와 전국 각 교구의 회원 사제 18명도 참석했다. 각 구역 공동체 소개, 묵상, 경험담 나누기, 그룹 모임, 축제 등으로 이뤄진 이번 피정에서는 특히 <포콜라레운동의 한국내 토착화 방안>과 <세대 간 대화>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한국의 유교 문화와 현대 한국 사회의 환경 속에 포콜라레운동이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육화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과 노선들에 대해 남녀노소 회원들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피정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그동안 포콜라레운동을 밖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운동 자체가 많이 성장했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회원 상호 간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 다소 소홀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피정을 통해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친교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 포콜라레운동 한국 본부는 이번 피정에서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도직의 방향과 노선 등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범아시아 포콜라리니 모임

포콜라레운동 내에서 봉헌 생활을 하는 동정과 기혼 포콜라리니들을 위한 <범아시아 모임>이 2월 12일~16일 태국 중부 나콘나옥(Nakhon Nayok)주(州) 초라프뤽(Cholapruek) 휴양지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아시아 지역내 모든 포콜라리니들이 모여 포콜라레 봉헌 생활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 아시아 문화권에서 공동 직면한 여러 도전들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임에는 한국,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남녀 동정 및 기혼 포콜라리니 4백92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86명이 참가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히 파키스탄 등 정치, 사회 상황이 불안



한 가운데에서도 포콜라레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 몇몇 나라 포콜라레의 경험이 전해져서 참가자들의 시야와 사고방식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또 아시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타종교와의 대화의 중요성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 한국 참가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시아 다른 나라 포콜라레의 경험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제5차 중앙이사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2011년 12월 19일 오후 5시부터 성바오로병원 별관 5층 간호부회의실에서 중앙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중앙이사회를 열었다.

‘생명음악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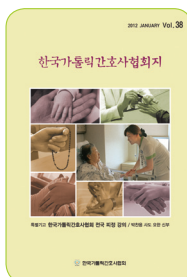


2012년 1월 15일(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생명음악회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려 본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생명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치하하는 한편 생명수호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통해 생명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높여 향후 생명수호 활동에의



의지를 다지고자 했다. 아울러 생명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생명수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초대가수 인순이, 부활(김태원), 김광진, 이희아, 노라조 등의 출연으로 흥겨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 제38호 제작 발송



1년에 한번 제작되는 연간지인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 38호가 지난 1월 26일 1,000부 제작되어 전국으로 발송되었다. 많은 원고로 동참해 주신 회원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로 신앙에 관련된 서적 1권씩을 선물했다.

제2차 전국가톨릭 병원 간호수도자 연수

제2차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수도자 연수가 1월 27일(금)에서 29일(일)까지 '사랑하며, 춤추며'라는 주제로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전국의 간호수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51회 전국이사회,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는 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13개 교구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만남의 기쁨'을 주제로 보건사목 담당 유수일 주교(군종교구장)를 모시고 제 34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51회 전국이사회, 피정을 실시했다.

20여 명이 참석한 제51회 전국이사회에서는 '간호 수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정식 사업(선교부)으로 채택 할 것인지와 '회원 배가 운동'에 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대의원총회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시년 2회 개최되고 있다. 전국 14개 교구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 전국이사회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년도 우수교구 포상과 공로상 수상이 있었다. 우수교구에는 '부산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진옥주)'가 금일봉 30만원과 상장을, 공로상은

'인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수상했다.

우수교구 포상 기준은 ▲전년 대비 회원 수 증가 ▲본 협회 행사 참여율 ▲사업 활동 보고 등이며 공로상은 전년도 본 협회 전국 피정을 주관한 교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관련근거: 제 50회 전국이사회 결정 사항). 이어 2011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이에 앞서 1월 5일 회계 및 업무 감사가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날 모임은 협회가로 마무리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교구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 의사협회(회장 조건현)는 전국교구 회장단 연례 회의를 2011년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18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지난 일년을 성찰하고, 2011년 가톨릭의사협회 및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 활동보고와 다가오는 2012년의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총회 및 피정 스케줄 및 연차 선정 사업 계획이 논의되었다.

생명음악회 참석

김수환추기경연구소와 생명위원회가 주최하는 생명음악회가 1월 15일(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생명수호와 관련된 기관 종사자, 봉사자, 대상자들을 격려 지지하고 가톨릭생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위해 개최된 음악회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34호 발간

예년의 틀을 벗고 새 단장을 한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34호가 정기총회 전 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 1일 쉬는 날이지만 대구에서 김중강 원장이 올라와 서울역 T원에서 편집회의가 있었다. 참석 인원은 김중강(본지 편집인, 가원요셉 이비인후과 원장), 고영진(본지 편집인,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김중욱(예지 대표), 강영숙(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과장) 4명으로 이들은 멋진 협회지를 위한 심층회의를 했다.

레지오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청년단원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김남철, 담당사제 김종대)는 2012년도 첫 교육을 청년단원 교육으로 1월29일 평생교육원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시작기도에 이어서 레지오의 목적과 정신에 대해서 김남철 단장이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는 청년 레지오 단원의 의무로써 신심과 묵상을 실천할 의무와 겸손은 활동의 뿌리이며, 봉사하는 온 힘을 다하는 참된 심신으로 사도직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상현(안드레아) 보조서기가 주회합의 순서를 강조하며 성모님과 함께하는 주회합을 참되게 지냄으로써 청년단원 모두 개인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교육을 마쳤다.



꼬미시움, 꾸리아 신임간부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는 2월 11일 평생교육원

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꼬미시움, 꾸리아 신임간부 교육을 실시했다.

시작기도에 이어서 세나투스 단장이 '간부의 자질 및 종합 보고서 작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레지오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며 봉사하는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는 세나투스 부단장이 평의회의 신임간부로서 평의회를 잘 이끌수 있도록 '레지오 관리'에 대해서 강의했다.



동정

알림

‘평협소식’에서는 각 교구 평협과 회원 단체 담당 사제와 임원들의 동정기사를 신고자 합니다.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에 취임

서울대교구 평협 자문위원 겸 회칙개정특별위원인 조광 이나시오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8일 (재)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에 취임했다. 이로써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은 이원순 에우세비오 서울대 명예교수 노길명 요한 세례자 고려대 명예교수 등 3명으로 늘어났다.

조 교수는 이에 앞서 6일 실학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사상사를 동아시아사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법론을 구축한 공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백영서)이 주관해 선정하는 용재 석좌교수에 뽑혔다. 용재 석좌교수는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낸 용재 백낙준 선생을 기려 제정된 용재기념사업회(회장 방우영)가 연세대 국학연구원에 의뢰해 선정하는 석좌교수 초빙 제도다. 조 교수는 가을 학기에 연세대 학부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50년, 60년의 세월

- 회경축, 금경축 축하를 드린 의미 -



금년 성목요일 성유축성 미사 끝에 거행된 서울대교구 원로사제들의 수품 60주년과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식에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몇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존경하올 서울대교구장 정 니콜라오 추기경님 주례

로 두 분 주교님과 교구 사제단이 함께 봉헌하신 올해 성유축성 미사에 이어 거행되고 있는 다섯 분 신부님들의 사제 수품 60주년 회경축과 50주년 금경축 축하식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경축의 자리에 나오신 백민관 테오도로 신부님과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님,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께 영광과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김병일 요셉 신부님과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님에게도 온 마음 다해 축하드리면서, 하루 속히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인의 말을 빌린다면 사제는 먼저 “하느님의 사람”(1티모 6,11)이 되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들의 못자리인 신학교에서 철차탁마, 몸과 마음과 학문을 갈고 닦으신 분들이고, 마침내 60년, 50년 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38선 이북인 황해도 장연이 고향인 백민관 신부님은 부모·형제들과 이별을 하고 혈혈단신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혜화동 신학교로 옮기셨고,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부산으로, 또 제주도까지 피란 다니시며 사제수업을 받았고, 마침내 60년 전, 6.25전란 중이던 1952년 12월 부산에서 사제직에 오르셨습니다.

소신학교 교사에 이어 해외유학길에 오르신 신부님은 사

제생활 60년 중 50년을 신학교에서 사제양성에 헌신하시는 한편, 저술활동으로도 크나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제자 신학생들이 사제직에 오르고 제자 사제들 중에 주교로 축성될 때가 무척 기쁘고 보람 있었다고 말씀하신 신부님은 2004년 원로 사목자가 되신 다음인 2007년에 펴낸 「백과사전 -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역시 가장 보람된 일로 꼽으신 업적입니다.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은 홍제동본당에 계시던 1981년 10월 18일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됐을 때, 60만 회중들에게 공동고백 후 보속으로 주변의 쓰레기를 모두 각자가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해 광장 뒷자리가 깨끗해지도록 하신 일화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이 가톨릭 신자들은 역시 다르다고 쓰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부님은 또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를 맡고 계시던 2002년 8월 17일, 당시 한국교회에서 사제수업을 받은 중국인 신학생 중 한 사람인 왕건공 부제의 사제 서품식이 중국 타이위안 교구 육합촌성당에서 성황리에 거행됐을 때, 몇몇 교수 신부님들, 순교자현양회와 평협 임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그러한 전통을 우리 교구가 세울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공헌하신 것입니다.

금경축을 지내시는 신부님들이 사제 성품(司祭聖品)을 받으신 해는 꼭 50년 전인 만큼 바로 1962년으로서,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된 데다 로마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해였습니다.

따뜻한 품성을 지니신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가까이서 봐온 것은 공의회 문헌인 ‘교회헌장 강독모임’에서였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30명이 매주 교구청 대회일실

에 모여 문헌을 읽고 의견을 나누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수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 원장으로 계시는 신부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는 관심과 기도로써 뒷받침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김병일 요셉 신부님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출생으로, 복녘 고향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일본 성지순례 중에 듣고, 저희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라틴어에 정통하신 최승룡 테오피로 신부님은 최근까지도 가톨릭회관에서 교회사연구소가 있는 평화방송 건물로 건너다니시던 모습을 자주 뵈올 수 있었는데, 하루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신앙의 해 개막을 앞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상태가 '연료없는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신 교황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사제들의 손길은 바빠야 하고, 또 사제의 손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길에서, 그리고 사제 생활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며,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참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복돋아 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제직을 제정하신 이 특별한 날에, 회경축과 금경축을 맞이하신 신부님들과 다른 모든 성직자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수도자와 교우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아닌, 여러 분 사제들의 수품 50주년, 60주년을 경축하는 데에는 한두 마디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50년, 60년을 그리스도의 사제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참으로 많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말씀만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울림으로 살아오신 가치 있는 삶. 우리 평신도들도 각자 직종에서 최선을 다하되 가장 가치 있는 삶, 곧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여깁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 교구 평협, 회원단체 회장, 담당사제 명단

■ 각 교구평협 회장, 담당사제 명단

교 구 명	회 장	담 당 사 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서울대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최홍준 파비아노	민병덕 비오 신부(사목국장)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김춘배 프란치스코	신호철 토마스 신부(사목국장)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김흥거 세례자요한	임기선 요셉 신부(사목기획국장)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문기득 레오	안규태 베네딕토 신부(사무처장)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변영철 마테오	문희종 세례자요한 신부(복음화국장)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강호석 루치아노	김민규 요한 신부(사목국장)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김종해 비오	김영호 알폰소 신부(사목국장)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하창식 프란치스코	손삼석 요셉 주교(총대리)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조광호 벨라도	손병익 루카 신부(선교사목국장)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김항성 바오로	이형수 블라시오 몬시뇰(총대리)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한양 그레고리오	황재모 안셀모 신부(사목국장)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정권 베드로	우원주 베드로 신부(사목국장)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문덕영 알렉산델	고병수 사도요한 신부(복음화실장)
군중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승조 모세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교구장)

■ 한국평협 운동단체 회장, 담당사제 명단

단 체 명	회 장	담 당 사 제
마리아사업회 (남,여)	김석인 알베르토(남 대표) 문원주 마리스(여 대표)	김석인 알베르토 신부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체계순 데레사 수녀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한국 가톨릭 결핵사업 연합회	김경숙 이사벨라 수녀	박정우 후고 신부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채규태 알비노	조옥현 토마스 신부
한국 가톨릭 군종후원회	서만규 베드로	윤병길 세례자요한 신부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윤재송 시몬	고형석 스테파노 신부
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강희덕 가롤로	지영현 시몬 신부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한국 가톨릭 성령채신봉사자 협의회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유영희 프란치스코	조학문 바오로 신부
한국 가톨릭 아동 복지 협의회	박화자 글라라 수녀	정광렬 바르톨로메오 신부
한국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김태식 토마스	허영엽 마티아 신부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배순희 아가다	임기선 요셉 신부
한국 가톨릭 의사협회	조건현 암브로시오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한상용 티토 신부	한상용 티토 신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장주영 요셉 주간	임덕일 아마투스 신부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남철 요한 마리아비안네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한휘운 아녜스	민병덕 비오 신부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방경홍 가브리엘	하성호 사도요한 신부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 카운터 한국협의회	김태성 루치아노, 김희숙 아녜스 대표부부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조정오 요셉 신부	조정오 요셉 신부
한국 가톨릭 농민회	이상식 대건안드레아	김규봉 가브리엘 신부
한국 지속적인 성체 조배봉사자 협의회	김명관 안셀모	홍성만 미카엘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정해정 요셉	김준석 멜키오르 신부
한국 가톨릭 교수협의회	이진규 세바스찬	박홍 루카 신부